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5호 【루게 제24678호】 주제 103 (2014)년 9월 22일 (월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인터넷에 게재, 연구토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멸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가 6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멸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메히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가 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를 최근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가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혁명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지침이다》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선군절에 즈음하여 8월 28일 브라질에서 진행되었다.  
\* \* 토론회에는 브라질주제사상연구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 \* 토론회에서는 먼저 브라질주제사상연구소가 브라질에 온 베스 마르티네스가 로작의 기본내용을 해설하였다.  
\* \* 이어 여러 인사들이 토론

하였다.  
토론자들은 선군혁명론, 선군정치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혁명론으로서 정치방식이라고 강조하였다.  
\* \*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의 가치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신데 대하여서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경도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해나가고계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격찬하였다.  
\* \* 그들은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낼것이라고 확인하였다.  
\* \* 본사기자

## 위대한 어머니를 우러르는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

### 김정숙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명예칭호와 훈장 등을 수여해드리고 그이를 칭송하는 도서, 시작품 창작출판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수혈결사대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고서 온 생애를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강그리 불태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세계적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있다.  
\* \* 열렬한 애국충정과 헌없이 고결한 행적을 위해 강그리 불태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세계적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있다.  
\* \* 열렬한 애국충정과 헌없이 고결한 행적을 위해 강그리 불태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세계적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있다.  
\* \* 열렬한 애국충정과 헌없이 고결한 행적을 위해 강그리 불태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세계적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있다.

위대한 어머니를 우러르는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기념하여 여러 나라에서 명예칭호와 훈장 등을 수여해드리고 그이를 칭송하는 도서, 시작품 창작출판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 \*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가 6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 \* 메히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가 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 \* 브라질주제사상연구소가 8월 28일 브라질에서 진행되었다.  
\* \* 토론회에는 브라질주제사상연구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 \* 토론회에서는 먼저 브라질주제사상연구소가 브라질에 온 베스 마르티네스가 로작의 기본내용을 해설하였다.  
\* \* 이어 여러 인사들이 토론

하였다.  
토론자들은 선군혁명론, 선군정치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혁명론으로서 정치방식이라고 강조하였다.  
\* \*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의 가치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신데 대하여서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경도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해나가고계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격찬하였다.  
\* \* 그들은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낼것이라고 확인하였다.  
\* \* 본사기자

하였다.  
토론자들은 선군혁명론, 선군정치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혁명론으로서 정치방식이라고 강조하였다.  
\* \*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의 가치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신데 대하여서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경도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해나가고계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격찬하였다.  
\* \* 그들은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낼것이라고 확인하였다.  
\* \* 본사기자

하였다.  
토론자들은 선군혁명론, 선군정치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혁명론으로서 정치방식이라고 강조하였다.  
\* \*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의 가치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신데 대하여서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경도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해나가고계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격찬하였다.  
\* \* 그들은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낼것이라고 확인하였다.  
\* \* 본사기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제14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1일 제14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 \* 그들은 나라의 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성홀들에서 참가자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

었다.  
\* \*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철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

보았다.  
\* \*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

었다.  
\* \*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

##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

### 청년전위들의 결의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인 서한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결의모임이 21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 \* 모임장소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혼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갈 청년전위들의 혁명적열정으로 세계가 끓어번지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금수산태양궁전 정면에 모셔져있다.  
\* \*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모임장소에 세워져 있었다.  
\* \*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서한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라는 구호판들과 《청년전위》, 《결사옹위》라고 쓴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중앙과 지방의 청년동맹일군들, 모범적인 청년동맹원들, 판계부면 일군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 \* 결의모임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과 합창으로 시작되었다.  
\* \* 모임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 \* 보고자는 온 나라에 조선속도 창조와 불길의 세차게 타번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서한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결의모임을 가지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 \* 청년동맹의 강화발전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역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고 말하였다.  
\* \*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청년들을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로 준비시키며 청년동맹을 우리 당의 강위력한 선군청년전위조직으로 꾸려나가게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라고 강조하였다.  
\* \*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워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 \* 어머니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철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 \*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

었다.  
\* \*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

하며 혁명적이며 자각적인 조직생활 기풍을 확립하고 청년전위모범단체 경위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 \*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고 모든 청년동맹초급일군들이 이선작전의 모범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이끌어주는 기판차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 \* 보고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발을 펴며 휘날리며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 모임에서 토론한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로동자 로금철, 만포시 건학협동농장 분조장 리함금,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강위성, 중구역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박성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철의 신념과 의지를 토로하였다.  
\* \* 당의 부름이라면 단숨에 산악도 뚫고 날바다도 메우던 전세대 청년들처럼 진격의 돌파구를 남김 없이 열어가며 청춘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 더 높은 전력증산으로 당을 받들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한몸이 그대로 생명수가 되고 거름이 되어 사회주의협동농장마다에 만풍년의 노래소리 높이 울려나갈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살려내 받들어나가는 참된 애국농민, 농민영웅이 될 결의를 피력하였다.  
\* \* 우주를 정복한 위성과학자들처럼 아심만만한 포부와 열정을 안고 두뇌, 기술력을 완강하게 벌려 과학 기술과 부강조국건설을 추동하는 최첨단과학자의 선구자, 유능한 혁명인재로 준비해나갈 맹세를 다짐하였다.  
\* \*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뉘우친 심정에 새겨안고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을 당의 사상과 명도를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선군청년전위대로 튼튼히 꾸려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 \*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 \*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과 합창으로 결의모임은 끝났다.  
\* \* 【조선중앙통신】

#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별처럼 빛나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 오늘도 오산덕은 수령결사옹위전에 우리를 부른다

오산덕기슭으로 사랑들의 물결이 끝없이 흐른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뜨거운 추억을 안고 항일전의 군복 차림 그대로 서 계시는 어머니의 동상을 우러르는 사람들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인다.

수많은 민족의 딸로 탄생하시어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그 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로동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그이의 생애는 서른두해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길지 않은 인생은 우리 새 세대들에게 혁명가들이 간직하여 할 가장 고결한 인생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세대와 세대를 이어, 년대와 년대를 이어 가르쳐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시다.》

사람들속에서 널리 위하고있는 도서 《김정숙동지전기》편찬에 참가한 어느 한 력사가는 말하였다.

어머니의 한생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의 배파전사였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의 배파전사!

그렇다. 이것이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한생에 대한 력사의 정수이며 여기에 어머니께서 지니고계신 가장 값 높은 인생관의 핵이 있다.

수령결사옹위, 이에 대하여 말할 때면 사람들은 누구나 대사하지거나 무충현성 그리고 홍기화를 비롯한 항일의 격전장들을 먼저 생각한다.

사령부도 항하는 원수의 총구가 백천이라 해도 그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결사의 각오를 지니시고 자신의 한몸이 그대로 원수의 총구를 막아내는 역사의 방벽이 되시어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신 김정숙동지가 아니시던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제일 앞장서서 받들어 결사옹위하신 수령님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 제일기수로서의 김정숙동지의 품도 어머니께서 지니신 남다른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조국이 해방되었다.

10여년세월 백두광야에서 풍찬로 속하시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신 백두산녀장군의 조국개선을 일념으로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셨던가. 백두산의 녀장군의 총애는 눈이 달랐는데 거기에 걸려든 눈들은 절대로 살아들



다함없는 경도의 정을 안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은 근로자들 -회령혁명사적지에서-

아가지 못했다. 어머니께서는 천기를 내다보신다는 전설을 비롯하여 김정숙동지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며 온 나라 인민들이 환영의 꽃다발을 엮고있었다. 하지만 김정숙동지의 조국개선의 길은 어떠한가.

그런데 조국에 첫 자국을 찍으시는 격경의 그 순간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중나온 정치공작원에게 하신 첫 물음은 《김일성장군님께서 건강하시니까?》였다.

이렇게 조국으로 돌아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평양으로 가시는 길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드시고 항일전의 나날처럼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결사옹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었다.

조국에 돌아오신 다음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선봉함에 모인

인민들앞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전진군이 곧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시었고 한 농민의 가정을 찾으면서서는 몸소 도리깨질을 하시며 앞으로 땅은 밟아서는 농민들의것으로 된다는것을 해설해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떨쳐나설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새길신문사(당시) 기자들을 만나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시면서 전제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떨쳐나설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새길신문사(당시) 기자들을 만나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시면서 전제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떨쳐나설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청진시인민위원회 일군들과의 회담

은 유계회차에서 맞으신 김정숙동지 이시었다.

3천만의 다함없는 환호를 받으시며 꽃수레를 타고오시어 인민들의 성기가 모자라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단원들을 찾으신고 매일과 같이 사람들들과 담화를 나누시며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참된 혁명전사의 모습을 조국평에 아로새기시었다.

어머니께서 해방된 조국평에서 보내신 4년세월, 그 나날 건국의 초행길에 남기신 김정숙동지의 발자취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몸소 찾으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원들의 자발적 연혁사가 그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더불어 정면에서 활동하시었고 해방된 조국평에서의 첫 생일날도 비좁은 유계회차에서 맞으신 김정숙동지 이시었다.

그 나날 꿈결에도 그리시던 고향 회령에 들려보자는 투사들의 권유도 마다하시고 장군님의 건국위업을 받들어 정면에서 활동하시었고 해방된 조국평에서의 첫 생일날도 비좁은 유계회차에서 맞으신 김정숙동지 이시었다.

3천만의 다함없는 환호를 받으시며 꽃수레를 타고오시어 인민들의 성기가 모자라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단원들을 찾으신고 매일과 같이 사람들들과 담화를 나누시며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참된 혁명전사의 모습을 조국평에 아로새기시었다.

어머니께서 해방된 조국평에서 보내신 4년세월, 그 나날 건국의 초행길에 남기신 김정숙동지의 발자취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몸소 찾으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원들의 자발적 연혁사가 그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더불어 정면에서 활동하시었고 해방된 조국평에서의 첫 생일날도 비좁은 유계회차에서 맞으신 김정숙동지 이시었다.

그 나날 꿈결에도 그리시던 고향 회령에 들려보자는 투사들의 권유도 마다하시고 장군님의 건국위업을 받들어 정면에서 활동하시었고 해방된 조국평에서의 첫 생일날도 비좁은 유계회차에서 맞으신 김정숙동지 이시었다.

3천만의 다함없는 환호를 받으시며 꽃수레를 타고오시어 인민들의 성기가 모자라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단원들을 찾으신고 매일과 같이 사람들들과 담화를 나누시며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참된 혁명전사의 모습을 조국평에 아로새기시었다.

어머니께서 해방된 조국평에서 보내신 4년세월, 그 나날 건국의 초행길에 남기신 김정숙동지의 발자취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몸소 찾으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원들의 자발적 연혁사가 그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더불어 정면에서 활동하시었고 해방된 조국평에서의 첫 생일날도 비좁은 유계회차에서 맞으신 김정숙동지 이시었다.

그 나날 꿈결에도 그리시던 고향 회령에 들려보자는 투사들의 권유도 마다하시고 장군님의 건국위업을 받들어 정면에서 활동하시었고 해방된 조국평에서의 첫 생일날도 비좁은 유계회차에서 맞으신 김정숙동지 이시었다.

### 백두산녀장군께서 남기신 혁명적구호문헌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몸소 혁명적구호들을 쓰시어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불려일으키고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어 승리는 반드시 온다는 신심을 안겨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 남기신 혁명적구호문헌들 가운데서 백두산녀영과 청봉속영지에서 발굴된 구호문헌의 일부를 전한다.

《백두산에 장수별 뿔다 백두산정수 삼천리를 비친다. [주체 25(1936)년 9월 백두산녀영] 《남촌녀비 반대 여성해방만세 할것을 천대만반 조선녀인들 모두 일어나 항일전에 참가하자》 [주체 25(1936)년 9월 백두산녀영] 《조선청년들, 속히 달려나와서 항일전에 힘있게 참가하자》 [주체 28(1939)년 5월 청봉속영지]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 해방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자》 [주체 28(1939)년 5월 청봉속영지] 《일어나라 단결하라 전세계 로력대중들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자》 [주체 28(1939)년 5월 청봉속영지] ... 본사기자

### 소백수굴에서 들려주신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 바치신 어머니의 충실성은 절대적인 신념이었고 승고한 도덕이었고 일상적인 생활이였으며 어머니의 한생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가장 값 높은 한생이였습시다.》

주체 25(1936)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부대과 소백수굴에서 숙영할 때의 일이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대원들과 함께 전막질 준비를 하시었다. 사령부전막을 중심으로 부대의 숙영지가 마련되였다.

그날 저녁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압록강연안에 나와 군사정치활동을 벌리던 이 이야기 그 과정에 조국평을 바라보며 흥분할 글씨 못해하던 이야기 그리고 고향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밤이 깊어 자리에

누우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시었다.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싸우다가 떠나간 전우들 생각, 조국을 위하여 온갖 난관과 시련의 고비를 이겨내던 생각, 생사를 모르는 조국애의 생각, 장군님을 모시고 해방된 조국에 개신할 앞날에 대한 생각...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옆에 누운 대원에게 저 하늘의 별무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고 조용히 물으시었다.

고향을 떠나던 때의 일들과 그후 장군님을 모시고 지나온 일들이 되새겨진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저 하늘에 총총하게 뜬 별들은 유난히도 밝은 빛을 뿌리고있습시다. 저 별들이 태양이 없어야 어떻게 지금처럼 밝은 빛을 뿜수 있었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야 저 별들이 빛을 뿜수 있듯이

김일성장군님을 사령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 유격대원들도 빛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 사령관동지를 더 잘 모시고 저 하늘의 별처럼 한생을 빛을 뿌리면서 참담게 살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숙동무는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도 조국과 인민,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였으며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습시다.》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길지 않았으나 녀대원의 가슴속에 커다란 여운을 남기며 깊이 자리잡았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하신 그날의 말씀은 오늘날도 나라 천만군민을 부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숙동지를 높이 받들어 모시고 저 하늘의 별처럼 한생을 빛나게 살라고. 본사기자 리금분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말따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말따공화국 대통령

마리어 루이스 클레이로 프리카각하

나는 말따독립에 즈음하여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평양

말따공화국 대통령

마리어 루이스 클레이로 프리카각하

나는 말따독립에 즈음하여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평양

주체103(2014)년 9월 21일

평양

###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된 조국으로 나오실 때 가지고오신 수수한 배낭속에는 그이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수첩이 있었다. 항일의 피터린 나날 전투와 행군으로 이어지는 간고한 속에서도 언제나 소중히 품고계신 수첩, 회생된 동지들과 영결한 밤이면 우뚝불가에서 그들의 이

### 수필

#### 어머님의 수첩

를과 유가족들의 주소, 나이를 한자한자 쪼아박아 싸넣으시며 유자녀들을 부모처럼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다 맹세 다지시던 김정숙어머님의 승고한 동지적 의미가 어려웠는 수첩이였다. 해방후 품속에서도 그리시던 고향 회령에 가고싶으신 마음 이 얼마나 크시였을까.

《김정숙동무는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도 조국과 인민,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였으며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습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삶을 빛낸 인민 수천만의 혁명가들의 맨 앞자리에

는 태양의 해발의 승고한 귀감으로 한생을 수놓아오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하신 그날의 말씀은 오늘날도 나라 천만군민을 부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숙동지를 높이 받들어 모시고 저 하늘의 별처럼 한생을 빛나게 살라고. 본사기자 리금분

위대한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삶을 빛낸 인민 수천만의 혁명가들의 맨 앞자리에

는 태양의 해발의 승고한 귀감으로 한생을 수놓아오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하신 그날의 말씀은 오늘날도 나라 천만군민을 부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숙동지를 높이 받들어 모시고 저 하늘의 별처럼 한생을 빛나게 살라고. 본사기자 리금분

위대한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삶을 빛낸 인민 수천만의 혁명가들의 맨 앞자리에

는 태양의 해발의 승고한 귀감으로 한생을 수놓아오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하신 그날의 말씀은 오늘날도 나라 천만군민을 부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숙동지를 높이 받들어 모시고 저 하늘의 별처럼 한생을 빛나게 살라고. 본사기자 리금분

항일유자녀들을 찾아 떠나신 전우들과 일군들을 만나시어서는 그들을 한두번만 찾아보아서는 안된다고, 시간이 걸려도 기어이 찾아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뜨겁게 떠올랐다.

혁명유자녀들을 빠짐없이 찾아 그들을 우리 혁명의 핵심 골간으로 키우는데서 어머니의

수첩은 참으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어느날 그이의 지택에서 함께 한 녀성이 그 수첩을 보게 되었다. 그 녀성은 김정숙동지께서 어떤 오늘에 다 예견하신것처럼 그런 신통한 생각을 하시였던가고 물었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어떤 선견지명이든 아니라고 회생된 혁명동지들을 잊지 않으려는 본분에서 출발전이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고 산에서 싸우던 때의 일을 옛날처럼 하면서 살게 되였어도 그들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들을 잊으면 혁명을 잊게 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어머님의 그 수첩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혁명유자녀들이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가.

인제간이 중요기관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오백명의 사색하여 온 한 유자녀가 들려준 이야기

가 있다. 주체 36(1947)년 8월 어느날 원아들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머니수령님과 함께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시었다.

《장군님!》, 《어머님!》 하고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의 품에 와락 달려와 웃실과 팔소매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원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신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애들이, 울지 말아. 이 기쁜 날에, 이제는 너희들이 고아가 아니다. 장군님께서 너희들을 보살피주게시었다.》

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첫 기자회견에서

며 그들은 김정숙동지께 언제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는가, 조선인민혁명군에는 언제 입대하였는가, 어떤 전투에 참가하였는가 하는것을 연방 문에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짙막한 대답을 주실뿐 자신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으시었다.

기자들은 신문에 김정숙동지의 공적을 크게 소개하려던 욕망을 실현할수 없었다.

해여지기 아쉬워하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앞으로 신문에 장군님의 로선과 방침을 잘 해설하여 대중을 새 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여달라고 당부하시었다.

기자회견내용이 실린 신문은 함경북도만이 아니라 평양과 전국각지에 배포되어 인민들속에

김일성장군님은 너희들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희들의 어머니가 되려고 한다.》

원아들의 아버지, 어머니! 혁명유자녀들이 만장일의 아들이며, 백두산의 아들딸들로 어머니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품에 안기게되기에 조선혁명의 피흘기는 더욱 맹렬히 이어졌다.

하기에 원아들 누구나 김정숙동지를 확연히 영원한 어머니로 모시고있으며 어머니의 사연같은 그 수첩을 오늘날도 잊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 어머니의 작은 수첩, 그것은 만경대혁명학원의 첫 대렬명단이였고 유자녀들이 새 조선의 역군으로, 백두의 혈통을 이은 조선혁명의 새 세대들로 태어난 출생증과도 같은것이였다.

해방후 유자녀들이 어머니의 다심한 손길에 이끌려 어머니수령님의 품에 안기던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세대도 끊임없이 바뀌고

하지만 김정숙어머님의 그 수첩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만경대의 혈통, 조선혁명의 피흘기를 후손대대로 이어놓는 천금보다 귀중한 재물이기에, 본사기자 김철혁

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첫 기자회견에서

며 그들은 김정숙동지께 언제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는가, 조선인민혁명군에는 언제 입대하였는가, 어떤 전투에 참가하였는가 하는것을 연방 문에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짙막한 대답을 주실뿐 자신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으시었다.

기자들은 신문에 김정숙동지의 공적을 크게 소개하려던 욕망을 실현할수 없었다.

해여지기 아쉬워하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앞으로 신문에 장군님의 로선과 방침을 잘 해설하여 대중을 새 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여달라고 당부하시었다.

기자회견내용이 실린 신문은 함경북도만이 아니라 평양과 전국각지에 배포되어 인민들속에

김일성장군님은 너희들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희들의 어머니가 되려고 한다.》

원아들의 아버지, 어머니! 혁명유자녀들이 만장일의 아들이며, 백두산의 아들딸들로 어머니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품에 안기게되기에 조선혁명의 피흘기는 더욱 맹렬히 이어졌다.

하기에 원아들 누구나 김정숙동지를 확연히 영원한 어머니로 모시고있으며 어머니의 사연같은 그 수첩을 오늘날도 잊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 어머니의 작은 수첩, 그것은 만경대혁명학원의 첫 대렬명단이였고 유자녀들이 새 조선의 역군으로, 백두의 혈통을 이은 조선혁명의 새 세대들로 태어난 출생증과도 같은것이였다.

해방후 유자녀들이 어머니의 다심한 손길에 이끌려 어머니수령님의 품에 안기던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세대도 끊임없이 바뀌고

하지만 김정숙어머님의 그 수첩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만경대의 혈통, 조선혁명의 피흘기를 후손대대로 이어놓는 천금보다 귀중한 재물이기에, 본사기자 김철혁



# 절세위인들의 웅대한 구상따라 펼쳐지는 천지개벽의 새 력사

## 세 포 지 구 축 산 기 지 건 설 장 에 서

### 세 세 년 년 길 이 전 하 라, 복 받 은 대 지 여

수수천년 눈과 비, 바람에 시달리며 잡초와 잡관목만이 무성하던 세포등판! 아득히 펼쳐진 세포등판이 로동당시대에 천지개벽을 자랑하고있다.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력사를 후세에 길이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참된 삶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은 오직 조국과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되고 꽃피날수 있습니다.》

오늘 세포전역은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전진하는 조선의 기상, 조선의 속도, 조선의 힘을 대표하는 시대어로 되고있다.

세기는 아직까지 이런 전변, 이런 변혁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수만정보의 황무지를 단 몇해동안에 기특진 땅으로 전변시키고 황량하던 등판에 풍요한 먹이풀바다가 설배에게 한걸음의 파편 기적이 아니라 말인가. 세포전역의 그 어디를 둘러봐도 좋다. 여기에 와보면 누구나 놀라고 자기의 눈을 의심하게 된다.

과연 이 땅이 사람 못살 버림받던 고장, 일제의 군마들의 발굽에 짓밟히던 그 땅이 옳단 말인가.

황량하던 옛 모습을 밀어내며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는 살림집들과 특색있게 건설되고있는 공공건물들, 집집순우리를, 팔간데일이 펼쳐진 사회주의대초원... 불과 2년이 흘렀다.

주제 101(2012)년 9월 22일, 바로 이날에 위대한 변혁을 부르는 장면

한 회색이 울렸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세포등판을 개간하여 풀판을 조성하고 축산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편비판을 일으키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을 필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여기시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푸시기 위해 이런 결심을 하시하여 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만민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진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시는 우리의 원수님이시였다.

많은 로력과 설비, 자금이 요구되는것으로 하여 그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처럼 아름답고 방대한 공사를 몇해 동안에 해체할것을 결심하시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전투에 부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에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었다. 천만군인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으로부터 바람포, 비포, 눈포가 유명하여 세포라고 불려온다는 땅이었다. 그만 세포땅은 바람으로 유명한 고장이 다. 사나운 겨울에는 눈을 뜯지 않게 불어대는 세찬 눈바람이 한치앞도 가려볼수 없게 하고 봄과 가을에는 또 그대로 흩날리는 일으켜 황량하기 그지없는 세포 등판, 이런 등판에 행복의 바람을 불려 오시려는것이 바로 우리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드림없는 의지였다.

행복의 바람!

불러만 봐도 가슴이 찜찜하게 젖어 든다.

돌이켜보면 세포지구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치게 하시려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의 념원이였다.

분여받은 제방에 행복의 첫 씨앗을 뿌렸던 그해의 가을에는 양목장을 내오도록 하시고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가 내 조국의 하늘가에 울려가던 그해에는 세포지구전변의 설계를 펼쳐주시고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농장을 창설하도록 하여 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오늘도 이곳 사람들이 진실처럼 전해가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생사를 판가리하던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불비속을 헤치며 세포땅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 여기서는 축산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고장 농민들이 잘살수 있는 방도를 환히 가르쳐 주신 어머니수령님, 그때부터 세포땅은 새 생명을 받아안고 인민의 행복이 주렁질 레일을 마중해나갔다.

정녕 세포등판은 복받은 대지이다. 어머니수령님의 숭고한 뜻 어려웠는데 이 세포땅을 인민의 웃음넘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행복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으로 불러주시려고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는 또 그 얼마만인가.

강원도를 찾으신 때부터 세포등판에서 소, 양, 염소와 같은 풀먹는 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기르는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바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그 념원,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인민들의 꿈과 리상이 여기 세포땅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포

지구 축산기지건설은 20리 남바다를 막아 일떠세운 서해감문공사에 못지 않은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라고, 우리 시대에 와서 수천년동안 버림받아오던 불모의 땅이 락원의 땅으로 전변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있다고 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공사를 제기에 무조건 완공하여야 한다고 힘있게 강조하시였다.

참으로 세포등판에 솟아난 하나의 창조물에도, 눈부리 아득히 펼쳐진 대초원의 한포기 먹이풀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인민사랑이 숨배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의지는 그대로 힘의 원천이 되어 두해전 좌풍의 첫 삽을 막은 때로부터 1년 남짓한 기간에 등판 개간과 자연물관리정리, 2000여 정보의 인공물판을 조성하고 2만 2000여마리의 집짐승축하, 300여동의 건축물공사추진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안아왔다.

올해에도 남에남다 세계를 놀래우는 대비약적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누구나 와보시라. 그러면 조선의 힘이 얼마나 무진막강하며 우리의 꿈과 리상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것인가를 가슴 뿌듯이 느끼리라. 그리고 가슴을 치며 생각하게 되리라.

이 거창한 창조와 전변에 짓는 절세위인들의 애국헌신과 인민사랑의 력사를!

그렇다.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며 굴지의 대규모축산기지로,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전변되게 될 복받은 대지 세포등판은 흐르는 세월과 함께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며 끝없이 노래하리라,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한 사랑과 업적을.

### 혁신으로 때미는 힘있는 지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 시, 군들에서 내부에비밀적 작구 탐구동원하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나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입니다.》

이무성과 대외문화협력위원회가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다. 이곳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개척자들과 전진로에 선 건축물공사추진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안아왔다.

올해에도 남에남다 세계를 놀래우는 대비약적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누구나 와보시라. 그러면 조선의 힘이 얼마나 무진막강하며 우리의 꿈과 리상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것인가를 가슴 뿌듯이 느끼리라. 그리고 가슴을 치며 생각하게 되리라.

이 거창한 창조와 전변에 짓는 절세위인들의 애국헌신과 인민사랑의 력사를!

그렇다.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며 굴지의 대규모축산기지로,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전변되게 될 복받은 대지 세포등판은 흐르는 세월과 함께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며 끝없이 노래하리라,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한 사랑과 업적을.

이 현장에 제때에 도착하여 돌격대원들은 시작부터 충천한 기세로 먹이풀판조성을 다그쳐나갔다.

수매량정성과 통양산지도국, 룡해운성을 비롯한 많은 성, 중앙기관의 책임일군들도 먹이풀씨와 각종 거름원천들을 앞질러가며 해결해주었다.

대성지도국의 책임일군들은 풍요한 사회주의대초원에 집짐승떼가 구름처럼 호를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100여마리의 양을 품을 들여가며 마련하였다. 그리고 방목공들과 함께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떠나보내며 그 마리수를 부쩍 늘일수 있게 도와주었다.

단위앞에 맡겨진 대상건설과제를 다그쳐 끝내는데 필요한 자재를 앞질러가며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라선시에서는 세멘트와 목재, 철근, 지붕재, 보온재를 비롯하여 량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자재를 짧은 기간에 마련하고 대상건설이 시작되기 전까지 현장에 도착시켰다. 결과 건축물공사를 시작부터 높은 속도로 다그칠수 있도록 하였다.

금강지도국, 국가자연개발성의 책임일군들은 돌격대와의 긴밀한 연계에 공사정형을 수시로 알아보면서 로력과 자재, 물건기재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 해당 단위들이 실적을 부쩍 높일수 있게 도와주었다.

평안남도의 각 시, 군들에서도 많은 영농물자들을 함께 여러 가지 자재를 제때에 마련하여 보내줌으로써 맡겨진 건축물공조공사를 다그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황해북도에서는 도와 시, 군 당책임일군들이 직접 많은 량의 목재와 철근을 비롯한 자재들을 가지고 현장에 찾아와 돌격대원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평양시와 자강도, 남포시, 외교단사업총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자체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 해당 돌격대가 맡겨진 건축물공조공사를 지장 없이 내밀수 있게 하였다.

많은 단위들에서 대상건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마감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보건성에서는 마련된 자재들을 하나하나 검사한 다음 현장에 실어보내군 하였다. 그리고 많은 로력과 함께 능력이 있는 시공일군을 현장으로 내려보내어 돌격대가 맡은 살림집과 집짐승우리건설을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게 하였다.

문화성, 수산성, 국토환경보호성의 책임일군들도 집을 짓자리에 놓고 요구되는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었다.

이런 단위들의 아낌없는 지원사업은 세포등판개척자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로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 정보당 최고 70여의 오리새를 생산

### 대성지도국 돌격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따사로온 품속에서 자란 우리 일군들은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높아야 하며 수령을 모시고 당을 받드는 실천활동에서 자기의 애국심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가을 어느날 대성지도국돌격대 일군들은 먹이풀배분제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품을 들인데 비하여 먹이풀정보당 생산량이 20% 미만이나 하였기에 문이었다. 이 문제를 놓고 땅을 밟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돌격대장 정광택동무의 생각은 달랐다. 조건이 불리하다고 잠시라도 주춤하던 당정책관철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였다 고 말할수 없었던것이다.

—은물이 그대로 거름이 되고 풀씨가 되어서라도 당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시대의 개척자가 되자.

이렇게 결심한 그는 현지주민

들과 무를 마추하였다. 그 과정에 토양상태에 맞게 유기질비료를 잘 리용하여야 지력을 높일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질에효용에는 꼭 섞인 비료를 집짐승배설물과 섞어 내면 토양구조는 물론 통기조건도 좋아져 먹이풀이 잘 자랄수 있었단 것이었다. 필요한 유기질비료만 충분히 확보하면 얼마든지 먹이풀배에서 장훈을 부를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일군들은 돌격대원들과 함께 여러곳을 다니며 버거무지를 찾아내어 1000여을 확보하였다. 지도국의 일군들이 이 사실을 알고 100여의 집짐승배설물을 집짐승수송하여 현지에 보내주었다. 신심이 넘친 돌격대원들은 버거와 진거름의 배합비율을 10:1로 정하고 유기질비료생산 다그쳤다. 결과 돌격대에서는 집짐승배설물, 진거름, 해묵은 버거와 구운흙을 비롯한 각종 거름원천으로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정보당 60t을 토전에 내고 씨발일

을 하였던것이다.

지력을 높인 일군들은 포전 씨뿌림량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해 먹이풀씨와 색깔이 다른 유기질비료를 따로 장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풀씨를 섞어 정확한 량을 뿌릴수 있게 하였다. 또한 비가 오기 전일까지 씨발임을 외닥다 깔낼수 있게 일정 계획을 세움으로써 싹트는풀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일군들은 포전 담당책임제를 바로 실시하고 먹이풀의 어린 모시기에 김매기근투를 드세게 내밀었다. 그리고 지도국책임일군들과 힘을 합쳐 여러가지 영양원소들을 충분히 보충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앞질러가며 세우나갔다. 이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먹이풀을 심은 첫해에 정보당 최고 70여의 오리새를 생산하였던것이다. 순수 풀먹는 집짐승 고기 1을 생산하는데 평균 30t의 먹이풀이 요구된다고 볼 때 이것은 정보당 2t의 고기를 생산할수 있는 량이다.

##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위훈을 창조

### 축산기지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분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포등판개척자들이 황무지에 강성번영의 새봄을 남긴것을 불러 사회주의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차넘치게 할 한결같은 열망과 의지를 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먹이풀재배를 과학적으로 담보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과학적인 토지개량방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지력을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3000개소의 포전들에 대한 토양분석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오리새를 비롯한 버거먹이풀의 뿌리특성에 맞게 정보당 300t의

흙갈이를 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보장할수 있는 방도들을 찾아내고 실천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한울철, 리성준, 송항미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먹이풀을 합리적으로 배지하기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먹이풀의 높고 안전한 수확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서철호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들은 앞선 재배방법들을 연구 도입하여 현실에서 큰 은을 내게 하였다. 또한 과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중자소독과 먹이풀도 옮겨심기방법을 적극 도입하였으며 병충해마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도 해결하였다. 결과 이들은 정보당 먹이풀생산량을 수십배로 높일수 있게 하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

근 9000정보의 인공풀판 조성

잡초무성하던 세포전역의 근 9000정보의 불모의 땅에 영양가 높은 먹이풀들이 깊숙이 뿌리를 내려 대규모축산발전

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인민보안부러단에서는 포전별 먹이풀의 품종배치를 바로하고 효능높은 식물성장촉진제를 적극 리용하면서 5회김매기와 진거름, 잎담비료주기를 실속있게 하여 먹이풀생산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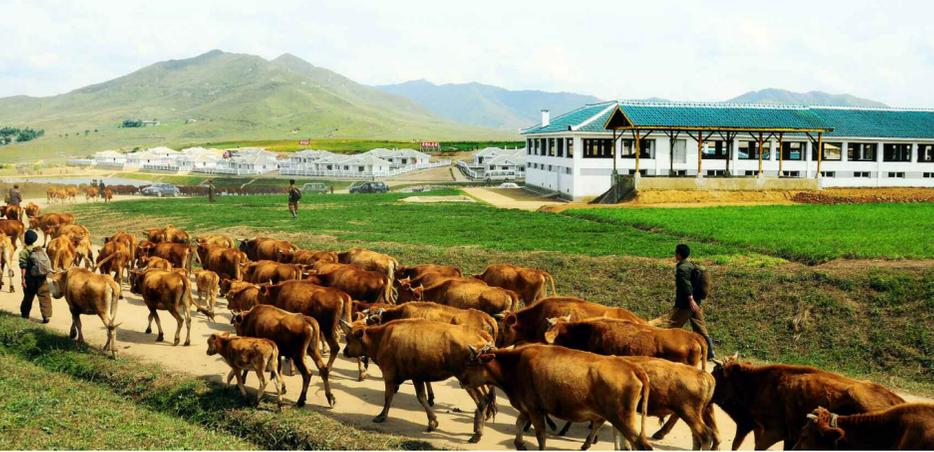
대성지도국, 인민봉사총국, 보건성, 수매량정성돌격대를 비롯하여 세포군사단의 많은 단위들이 불철, 가을철 먹이풀씨뿌리기를 적기에 끝내고 비배관리에 품을 넣어 정보당 수십의 각종 먹이풀을 생산하였다.

철도성려단에서는 정보당 먹이풀생산량을 늘이면서 포전 정리에 힘을 넣어 모든 포전을 규격포전으로 만들었다.

경강군사단의 각 도려단들에서도 계획된 면적에 오리새, 자주꽃씨를 비롯한 영양가 높은 먹이풀들을 심어 인공물판을 조성하였다.

1000여동의 대상 건설 힘있게 추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 곳곳에 1000여동의 살림집,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며 굴지의 대규모축산기지로,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전변되어 가는 세포등판

각종 집짐승 마리수 1.3배로

세포등판에 각종 집짐승마리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9월초현재 각종 집짐승들의 마리수는 지난해보다 1.3배로 늘어났다. 그중에서 양은 2배, 염소는 3.1배, 개사너는 1.93배로 늘어났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농업성과 세포지구축산경리위원회와의 연계에 우량품종의 소, 양, 염소들은 물론 개사너, 오리, 닭을 확보하여 종축, 증급생산체계를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또한 과학적인 사양관리체계와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 집짐승들의 증체를 증진시켰다. 2배이상 늘일수 있었으며 2만여마리의 말린물도 생산하여 겨울철먹이도 충분히 마련하였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 전국 출판 보도 부문 기자, 언론인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답사

【삼지연 9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출판보도부문 기자, 언론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17일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출발모임을 가진 답사행군대원들은 행군길을 다그쳐 력사의 땅 보천보에 들어섰다.

보천보전투지휘처, 경찰관주재소, 우편국, 면사무소 등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일제에게 깃뚫혀 신음하던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조국해방의 사활을 안겨 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천출위인상에 가슴저울을 금치 못했다.

백두산에서의 행군로정에 그들은 보시리샘물터와 종종등관봉에서 백두의 혁명전적을 우리 혁명의 명맥, 피줄기로 굳건히 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같이 체득하였다.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이 깃들었으며 항일선열들의 피와 땀, 승고한 투쟁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백두산전적지들을 답사하며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혁명생애로 빛나는 백두의 행군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실 의지를 더욱 가다듬었다.

19일 행군대원들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우리 땅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역센 뿌리가 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다.

주체조선의 혁명적기상과 슬기를 자랑하며 거언히 솟아있는 백두산정

승리하며 끝없이 강성번영할 것임을 확신하며 사령부귀를 집과 대원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사용하신 박우물과 손수 쓰신 혁명적구호 문헌들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청봉속영지, 건창속영지, 배개봉속영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무포속영지를 비롯한 백두의 전적지들을 답사하면서 그들은 항일대전의 날 투사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백두봉굴의 투쟁정신을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백두산에서의 행군길을 혁명전통학습의 중요한 계기로 삼고 행군대원들은 항일백두산항가자들의 회상기발표모임과 시상송, 답사소감발표모임, 혁명전통교양제의 명작발표모임, 종자도론회 등 여러가지 정치문화사업과 창작활동들을 활발히 벌여왔으며 야외에서 숙영도 하였다.

21일 삼지연혁명전적지에 도착한 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다발, 꽃송이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물 드렸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선군혁명명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행군대원들의 결의모임이 삼지연대기념비앞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 행군대원들은 자기들을 백두산전적지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혁명의 불태로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전국출판보도부문 기자, 언론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은 최후수령의 진격로를 앞장서서 열어나가는 항일유격대나팔수,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진군나팔수가 되어 사상적인 포성을 높이 울려나갈 기자, 언론인들의 혁명적선결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 투철한 복무관점이 안아온 열매

단천 마그네사공장 당위원회 사업에서

술자들을 감동시켰다. 공사는 45일만에 완전히 끝났다. 자기 공장에서 생산한 구명탄을 공급받는 종업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구명탄공급소앞에 큼직하게 써 붙인 이 구호를 공장당위원회원들은 단순한 구호로 대하지 않았다. 만족을 모르는 헌신, 도중유식을 모르고 뛰고 또 뛰는 완강한 실천으로 이 구호의 참 의미를 뼈에 새기었다.

어느날 점심때 구명탄을 공급받으며 주고하는 녀성종업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당위원회의 기술은 자책으로 피어들었다. 발열량이 그다지 높지 못해 낮에 탄을 갈지 못하면 저녁에는 불이 죽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었다.

여러가지로 시험해본 끝에 연재와 버력탄의 배합비율을 확충했고 또 발열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일부 세운것으로 만족하였던 자신들을 질책한 그는 즉시 공업시험소 연구사와 구명탄공급소 소장을 문신으로 만나보았다. 노력한 보람은 컸다. 초무연탄활성첨가제를 리용하여 구명탄의 연소효율을 높임으로써 종업원들의 호평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행간에 대한 종업원들의 수요가 앞으로 더욱 높아질것을 미리 내다본 당위원회원들은 또 다시 일만을 버려놓았다. 기술력량을 발동하는 한번에 구명탄

을 8개씩 적어내는 유압식형기틀을 새로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능력을 높이고 종업원들에게 매일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게 하였다. 보통분통을 만들어 집집에 공급해줌으로써 종업원들의 생활상편의를 더욱 원만히 보장하면서 소리의 원칙을 지킬수 있게 하였다.

오늘 공장종업원들이 《우리 가정수첩》이라 정답아 부르는 구명탄공급카드도 당위원들의 투철한 복무관점이 비껴났다.

연재인이 공급소에서 한 일군의 가정에 조금 많은 량의 구명탄을 공급한 사실이 있었다. 이것이 비상사건화되어 공급해준 당사자는 물론 공급받은 일군이 더 진땀을 흘렸다.

이를 계기로 일군이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총복이지 결코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는것을 모두에게 같이 인식시킨 당위원들은 종업원별구명탄공급카드를 만들어 공급소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이나 로동자들이나 똑같은 공급기준에 따라 매달 규정된 량을 공급받도록 하였다.

종업원들의 행간문제해결에서 이룩한 이들의 경험은 단천지구광업총국에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일반화되었다.

당위원들의 복무관점이 투철하면 어느 단어나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할 좋은 열매를 안아올 수 있다.

이것을 공장당위원회사업은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기술력량을 발동하는 한번에 구명탄

신천군 우산협동농장에 가면 20여년을 하루와 같이 집안과 동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온 제2작업반 2분조 선동원 김영숙동무에 대한 자량이 자자하다.

당조직의 믿음속에 선동원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는 맹목적이다. 분조원들을 앞장서서 불러일으키는 돌격의 나팔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부비서의 눈길이 그즈음 한곳에 쏠리기 시작한 버력탄터미널로 쏠렸다. 공장에 석탄가스화에 의한 경소마그네사생산공정이 새로 꾸러지면서 매일 수십 t의 연재와 버력탄이 나왔다. 쌓이는 버력탄터미널을 보면서 그는 불타오르던 전한시공리를 거뭇해온 끝에 결심을 내린 것이다.

인민에 대한 투철한 복무관점은 과학적인 타산을 앞세우게

우 리 선 동 원

당초급선진일군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한생의 재부여기고 누가 보지말건, 알아주건말건 진심을 바쳐 성실히 일 해가는 함철 선동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분조로전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대오의 기수로 일해 오 그는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뒤뚱이던 사람들을 교양하여 혁신자로 키우는데도 남모르는 노력을 바쳐왔다.

낮에는 분조원들의 앞장에서 일하고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볼터드는 피곤과 싸우며 선동자료를 만드느라 밤을 밝히기를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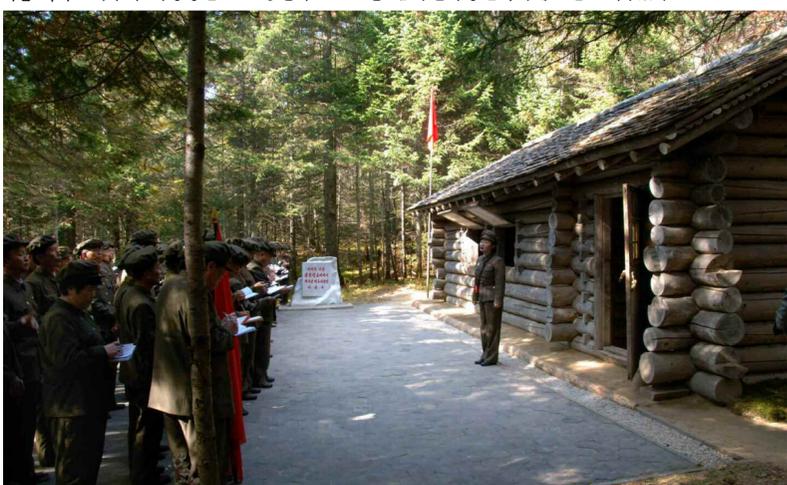
그가 만든 2만여건의 선동자료를들은 분조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편관철에 불려일으키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가지고 헌신하는 함철, 뜨거운 인정미로 자기들을 보살피는 만수이, 말없이 김영숙동무를 분조원들은 《우리 선동원》이라고 정명해 부르짖었다.

로동들은 분조원들을 당의 농업혁명방편관철에 불려일으키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가지고 헌신하는 함철, 뜨거운 인정미로 자기들을 보살피는 만수이, 말없이 김영숙동무를 분조원들은 《우리 선동원》이라고 정명해 부르짖었다.

로동들은 분조원들을 당의 농업혁명방편관철에 불려일으키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제10차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할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21일 제10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세계자유위업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과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씨가 씌여져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성장

대성구역 통북동 래명희녀성의 가정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녀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잘 키우려면 부모들이 자녀교양을 의도적으로 짜고들어야 합니다.》

대성구역 금성거리초급중학교 1학년에서 공부하는 김철일은 온 아바트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년이다.

인사성이 밝아서만이나, 소학교 1학년생이 되도록 그는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 늘 어머니의 등에 업혀 살아왔다. 그러했던 그가 지금은 학교가 자랑하는 소년단원이 되었다. 아마도 여기에는 부모의 그 어떤 남다른 관심과 훌륭한 교양이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안받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고 우리는 얼마전 철일의 어머니 태명희녀성과 마주앉았다.

뜻밖에도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것이였다.

《어째때도 우리 철일이 다시 태어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군인가정의 딸아들로 태어난 철일이 3살 나던 해에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태명희녀성은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어린것

을 불안하고 그저 울기만 하는 그에게 제일먼저 힘과 용기를 준 사람들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의 의뢰일군들이었다. 그들은 철일의 몸을 피를 넣어주며 정성을 다해 소생전투를 벌였다.

밤을 다 먹어야 병을 빨리 고칠수 있다고 한술가락, 두술가락 떠며 넣어주던 유치원선생님, 남보다 이른 날이 더 잤던 학교에 가지 못할 때면 집까지 찾아와 공부해 주던 소학교선생님, 귀한 약재를 구해안고 달려오던 고마운 사람들...

그렇게 7년세월을 철일은 한집안기수처럼 된 의사선생님들과 고마운 사람들의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병과 싸워이겨내왔다. 그 나날에 철일은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는다 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집에까지 남의 도움없이 출제 올른 그 이튿날 아침 태명희녀성은 아들의 손목을 잡고 금수산기념궁전(당시)과 잇닿은 도로에 비자루를 들고나섰다. 그날 도로를 활머머니가 하던 말을 철일은 늘 잊지 못해오고있다.

《너는 명이 길어 산것이 아니라 고마운 이 땅에서 태어난 덕에 살아났구나.》

그때부터 철일의 걸음은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러져있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더 자주 이어졌다. 비 오나 눈오나 변함없이 지성껏 마련한 원호물자를 안고 부모와 함께 인민군인전적지들을 찾아가던 나날에 철일은 나약함을 털어버리고 학습전투와 문단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나래에 보탬이 될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였다.

헤마나 국가적명절을 맞이할 때면 태명희녀성은 아들과 함께 아바트사람들이 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찾은 한 단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에 대표로 참가하였던 4.15총성의 만경대창상장, 우리 교실로 문학생수상자인 철일의 포스트는 두번다시 생을 준 사회주의 조국을 지키는 총대명사가 되는 것이다.

태명희녀성은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어린 자식의 가슴속에 그 무엇보다 먼저 이 땅의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마음부터 심어주고싶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답의 첫걸음을 떼어주고싶었습니다.》

본사기자 조 함 선

# 우리 나라 김은국선수 영예의 금메달 쟁취, 연속 새 기록 수립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력기경기에서

파는 수많은 력기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중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주체적인 경기전법과 기술을 편마해온 김은국선수는 신심에 넘쳐 추격올리기경기에서 나섰었다.

첫번째 들기에서 170kg을 자신만만하게 성공시킨 그는 174kg, 178kg을 연속 들어올림으로써 2012년 런던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세운 기록인 종합 327kg을 328kg, 332kg으로 두차례나 갱신하였다.

위대한 선군평정의 슬하에서 자라난 김은국선수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세계를 경탄시키는 기록을 세움으로써 선군조선체육인의 훌륭모습과 세계적 력기강자로서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상상식에서는 김은국선수에 금메달이 수여되었다. 경기장에서는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울려 퍼지고 함흥색 공화기가 울렸다.

이런 경기대회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쟁취한 김은국선수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기쁨을 드릴수 있게 되었고 생애에서 가장 격을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나라의 남, 녀 유술선수들인 홍국현선수는 73kg급경기에서, 김철민선수는 48kg급경기에서, 리호선선수는 57kg급경기에서 각각 3위를 하여 동메달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



# 애국의 마음은 언제나 푸르다

약산미나리를 널리 퍼치는데 이바지한 조용선동무에 대한 이야기

성분도 많이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병치료를 도와준다.

약산미나리는 곡을 끓이거나 볶아서 먹어도 맛있고 빵, 김치, 무침을 만들어도 좋고, 또한 생것을 고추장이나 양념장에 찍어먹을수도 있으며 여러가지 담배들과 섞어 포리를 만들 어먹어도 맛이 좋다.

약산미나리는 항암작용, 항염증작용, 리노작용, 진통, 진정 및 진정작용, 소화를 돕는 작용 등이 강하며 부부를 부드럽게 하고 항산화능력이 높다.

신선한 일을 상하게 판별업무 위에 붙이기도 한다.

약산미나리는 판상용이나 지 피시물로도 리용할수 있다고 한다.

약산미나리는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 지역 등에 분포되어있는 반면에 우리 나라에는 없던 식물이었다. 어느 한 기관에서 일하던 조용선동무가 외국출장길에 얻은 식물 몇포기를 가지고 중앙식물원을 찾아간것은 여러해전이었다.

한것은 자기의 실지체통을 통하여 알게 된것처럼 먹기에도 좋을뿐 아니라 특히 소화기계통 질환치료 등에 효과가 큰 이 식물을 우리 인민들이 널리 리용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소박한 생각때문이었다.

중앙식물원에서는 조용선동무가 가져온 식물에 대한 시험체배를 시작하였는데 놀랍게도 심어놓은 포기들이 모두 겨울을

성공적으로 나고 그 이듬해 봄부터는 왕성하게 자라났다.

시험체배를 계속 내린 결과 이 식물이 생활력이 대단히 강하고 번식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알려졌다.

조용선동무는 연구자들이 진행하는 이 식물에 대한 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국에 널리 퍼치기 위한 대책을 세울 때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었다.

조용선동무의 심장에 애국의 불길이 더 활활 타올랐다.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기관에서 맡은 일을 더욱 책임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약산미나리를 널리 퍼치기 위한 사업에 불같은 열정을 바쳐왔다.

명절날, 휴식날에도 자기가 직접 키운 약산미나리를 안고 소박한 생각때문이었다.

중앙식물원에서는 조용선동무가 가져온 식물에 대한 시험체배를 시작하였는데 놀랍게도 심어놓은 포기들이 모두 겨울을

과 관련한 연구성과를 편이어 이룩할 때마다 조용선동무는 더욱 활기에 넘쳐 약산미나리를 퍼치는 사업에 전력을 쏟아부었다.

조국의 식물자원을 늘여가는 애국의 길은 나라의 해박속에 널리 보장을 받은 후에도 중단없이 이어졌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조국애가 빛나는 유서깊은 문수봉의 기슭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무성한 잎을 펼친 약산미나리를 정명해 바라보는 그의 가슴에서는 삶의 보람이 그득이 차올랐다.

애국의 마음은 이렇듯 언제나 아름답다. 애국은 로쇠를 모른다.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김정일애국주의로 불려는 이런 순결한 마음들이 이 땅 어딜 가나 푸른 숲을 이루고있기에 내나라는 더욱 풍요해지고 더욱 강해지는것이 아닐까.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 철 료



온실삼새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본사기자 립 학 력 적음



조용선, 김순녀 부부

